

# 진짜 노동자! 진짜 환경운동가!

김혜애

노체인랩 환경보전국장

## 자연을 사랑해야 진짜노동자

“자연을 사랑해야 진짜 노동자!” 따뜻하고 정감어린 목소리로 노동자들에게 환경이야기를 들려달라며 전화로 원고를 부탁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윤효원 씨가 팩스로 보내온 원고청탁서에 가제목으로 붙여온 이름이다. 사실 매일매 일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는 의부에서 들어오는 원고 청탁이나 강의부탁이 그리 즐거운 소식만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환경사안에 대응하여 성명서 쓰고, 집회에 나가고,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고, 회원들에게 연락하고 하다보면 하루 8시간 근무라는 노동기준은 자못 이웃나라의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인지라 차분히 앉아 생각하고 글을 써야하는 작업은 힘들기도 할 뿐더러 모처럼 내는 밤시간이나 휴일을 꼬박 까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잠깐동안의 전화통화에 선뜻 쓰겠다고 한 이유는 전화 속의 목소리가 거절하기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철들면서부터 ‘노동’이란 말만 들어도 웬지 마음이 그득차울만큼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환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막상 수락해놓고도 그 넓은 환경의 내용 중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보니 청탁마감일을 넘길 듯 하는데 문득 원고청탁서에 쓰여져있는 굵은 글귀의 제목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대학다닐 때 그 박자와 음정이 신나서 길



대안 핵폐기물의 복합 평출계획에 항의해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대안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가다가도 곧잘 흥얼거리던 “사나이 한평생 살아간다 우리는 진짜노동자”라는 노래가 생각나 새삼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렇게 되바꿔보았다.

“노동을 사랑해야 진짜 환경운동가!”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91년부터 지금까지 환경운동이라는 것을 해오면서 느끼는 문제들을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일반적이고 딱딱한 이론을 쓰는 것보다는 실천운동을 통해 느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나마 덜 따분할까 싶어 운동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로 한다.

#### 에어컨과 환경철학

지금은 양반(?)이지만 현재 녹색연합 사무실로 이사오기 전의 우리 사무실은 합정동 구석의 낡은 6층짜리 건물 6층에 있었다. 맨 위에 자리하고 있어 거울에 난로 하나만으로 베티는 추위는 그나마 견딜만했는데, 한여름 옥상에 모아진 열기를 그대로 받아 내린 정오부터의 사무실은 완전히 사우나장 그 자체였다. 30여명의 인원이 선풍기 4~5대로 견디다 보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물흐르듯 흐를 판인데 한달에 한번 책자라도 나오는 날이면 좁고 가파른 계단을 무거운 책을 들고 몇번씩 오르락내리락 그야말로 유격훈련이다. 끝나면 모두가 땀벌벌

이다.

그러던 중 한 일꾼이 우리도 사무실에 에어컨을 놓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그 제안에 '에어컨이 환경오염에 얼마나 기여하는 줄 아느냐', '그래도 일의 효율성을 따져야 하지 않느냐' 하며 논쟁이 불었는데 한 친구가 폭탄선언을 했다.

"녹색연합에 에어컨 놓으면 나 녹색연합 그만둘래요."

원칙을 잊어버린 운동은 이미 그 가치를 잊어버린 죽은 운동이라는 말과 함께.

그 폭탄선언에 작은 논쟁은 너무 심겁게 끝이 나 버렸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고기와 콜라와 커피를 절대로 먹지 않는, 우리 중에서도 뛰는(?) 철저한 환경운동가이다. 현대인의 육식위주의 식습관이 많은 소를 필요로 하고, 그 많은 소를 사육하기 위해 소비되는 초지의 식물들과 사료들은 결국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많은 기아인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또 커피는 수많은 세3세계 원주민들의 노동력 착취로 향유되는 것이며, 콜라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며 환경파괴적인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이 그녀가 굳이 그것들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비록 그런 그녀에게 "유난을 떤다"고 곱게 눈을 흘리긴 하지만 그런 생활철학을 존경하고 그런 그를 사랑하는 우리들로서는 그 친구의 말이 가장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생활의 편리함에 환경운동가의 순결성을 쉬이 내어주려 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그 논쟁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물론 중앙 냉난방이 잘 되어있는 지금의 사무실에서도 그 원칙은 깨지지 않고 있다. 개별 사무실에서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사무실의 스위치는 여하한 경우(외부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손님들이 괴로운 날)가 아니고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그 대신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지난 여름에는 책상마다 예쁜 부채가 하나씩 놓여졌다. 비록 부채질을 하려면 땀을 끓으로 흘려야 하지만, 그 후더운 부채바람 곁에 묻어 나오는 우리들의 환경철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제아무리 시원한 에어컨일지라도…

지난 여름에는 책상마다 예쁜 부채가 하나씩 놓여졌다.  
비록 부채질을 하려면 땀을 곱으로 흘려야 하지만, 그 후더운 부채바람  
곁에 묻어 나오는 우리들의 환경철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제아무리 시원한 에어컨일지라도...

### 대만핵폐기물과 광화문 네거리

지난해 1월이니까 꼬박 1년하고도 9개월이 흘렀나보다. 새로운 해의 사업계획에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을때 “대만에서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보도를 접했다. 대만 안에서 너이상 차리가 불가능해진 핵쓰래기를 당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던 북한에 팔겠다는 계약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 보도에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꽂이어 즉각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녹색연합 장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녹색전사 6명이 대만 현지로 건너가 대만전력공사 앞에서 무기한 항의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 농성소식은 연일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고 3일만에 대만보수당과 소수 폭력배들에게 구타당하고 강제출국되자 이 문제는 자칫 국가간의 불화로 번질 듯 온 국민의 여론이 들끓었다. 대만무역대표부가 있는 광화문빌딩 앞에서의 농성과 서명운동, 집회, 해상시위, 외국단체들과의 연대 등으로 국민들과 환경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결국 대만 정부는 1년 이만에 이 계획을 철회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내 핵발전소 반대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소수의 주장으로만 여겨졌던 반핵발전소운동이 차츰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핵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이미 1986년 체르노빌 핵참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당시 방제작업에 투입되었던 짚은 노동자 중 8천여명이 사망했으며, 1만2천명이 심각한 피폭을 당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고리1호기를 비롯 총 14기가 가동 중이다. 고리와 영광의 핵발전소는 잦은 방사능 누출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에서는 핵발전소를 폐기하자는 운동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적-녹연정을 실현한 독일에서는 향후 30년간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핵발전소가 경제성과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부족한 전력은 대체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밭을에 향의하는  
녹색연합회원들의 시위.

STOP Taiwan's plan to ship  
nuclear waste to North Korea  
Green Korea (녹색연합)

발로 풀어야 할 문제  
이고, 보다 근본적으  
로는 전력수요를 줄이  
는 생활방식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에도 한국 정부에서는

전력수요 급증의 이유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만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예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노동자와 환경, 시민운동가가 연대해 핵  
발전소를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 우유팩과 우유병

나이 서른이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때의 기억 중 어슴프레한 새벽 문 앞  
에 놓여 있던 우유병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팩'이라는 관리하고도  
가벼운 포장용기가 있어 우유병은 그 자취를 감춘지 오래 되었는데 최근 2~3년간  
"우유병을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대의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쓰레기 문제이다. 그  
리고 쓰레기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장쓰레기이다. 우유팩  
도 포장용기의 하나인데, 문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셋이 말려 분리 수거하는 것이  
그리 효과가 없다는데 있다. 기껏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분리수거해 놓으면 결국  
쓰레기 수거차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섞어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버리는 것이  
상례이고, 설사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팩 내부에 7겹의 비닐코팅이 되어있는데다  
재활용비용이 많이 들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포장재 가운데 재활용율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유리이다. 유리는 100% 재활용  
이 되고 또 재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가장 진진한 포장재이고, 또 내용

현재 우리나라 1인당 폐기물을 발생량은 세계 제일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다간 몇십년, 아니 몇 년안에 한반도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찰지도 모를 일이다.

불의 덧도 신선하게 보장해주는 이점도 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설비를 바꿔야 하고 윤반이나 보관이 꽈에 비해 수고로울 수는 있겠지만 날로 심각해져가는 쓰레기 오염문제와 장기적인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시도해볼만한 일이다.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은 독일의 경우는 꽈과 병을 기업자율에 맡겨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우유병에 대한 홍보와 우유병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병 소비를 유도 장려한다고 한다. 덕분에 처음에는 꽈을 선호했던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병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마시고 버리는 작은 행위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폐기물을 발생량은 세계 제일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다간 몇십년, 아니 몇 년안에 한반도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찰지도 모를 일이다. 불건을 살 때 포장의 멋스러움보다 내용의 충실히과 포장재료가 친환경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이미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아닐까?

## 백두대간이 습쉽다

초등학교 맨가 중학교 맨가 자리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날말 중 '산맥'이라는 것이 있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 차령산맥 같은 지형과 어우러진 산맥 이름을 외우느라 진땀을 빼는 가운데 '산맥' 이런 개념은 우리 국토의 등뼈라는 것으로 자연스레 이해되어 지금까지 쓰여왔다. 하지만 최근에 '백두대간'이라는 다소 낯설은 날말이 자주 등장하며 '산맥'을 몰아내고 있다.

백두대간이란 우리 땅의 근골을 이루는 산줄기로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자리 산에 이르기까지 단 한줄기의 물줄기기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 우리 국토의 척추이다. 1400km에 달하는 백두대간은 백두산을 뿌리로 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한 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갈라진다. 마치 나무의 뿌리와 줄기, 가지가 갈라지는 것과 같다.

백두대간이 완성된 개념으로 정리된 것은 조선 영조때 나온 [산경표(山經表)]라

는 책에서다. 이 개념이 구한말 일제가 식민지 수탈을 위해 전 조선에 걸쳐 대대적인 광물조사 작업을 벌여 바꾼 개념이 바로 태백산맥인 것이다.

녹색연합에서는 잊어버린 우리 국토의 이름을 되찾고 그 생태계를 알아보고자 지난 96년, 97년 2년동안 지리산에서 설악산 전부령에 이르는 백두대간의 남한 구간을 두차례에 걸쳐 탐사했다. 7개의 국립공원, 2개의 도립공원이 자리해있는 백두대간 전지역을 밟으면서 도로와 터널, 골프장, 스키장으로 채운된 우리 국토를 아픈 마음으로 이루만졌고, 용케 어우러져 있는 우리 들풀과 들꽃에 무한한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다. 대장정을 거친 백두대간 환경대탐사는 우리들에게 이땅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인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 주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힘든 노력이 결코 헛될 수 없다는 신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38선으로 단절된 북한 쪽을 보지 못하고 반쪽짜리 탐사에



세계 5대 깃발의 하나인 우리나라 사해한깃발이  
강력으로 염마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시립호에서 전북 새만금에서 서해한깃발을 깊어서  
모흔하겠다는 녹색수색단

7개의 국립공원, 2개의 도립공원이 자리해 있는  
백두대간 전지역을 밟으면서 도로와 터널, 골프장, 스키장으로 훼손된  
우리 국토를 아픈 마음으로 어루만졌고, 용케 어우러져 있는  
우리 들풀과 들꽃에 무한한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다.

그친 것이다. 탐사대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진부령 넘어 백두산까지 시원하게 탐사해 빈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백두대간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 꿈이 실현된다면 통일도 성큼 다가올 것 같다.

### 간척으로 사라져가는 갯벌 - 새만금

1998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종로 파고다공원에는 이색적인 행사가 하나 열렸다. 이름하여 '녹색순례 발대식'.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우리나라 서해안갯벌이 간척으로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시화호에서 전북 새만금까지 서해안 갯벌을 걸어서 보존하겠다는 녹색순례단이 모인 것이다. 녹색연합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발대식을 마치고 시화호로 이동하였으며 시화호부터 걷기 시작하여 장장 400여km 이르는 거리를 옆홀동안 걸었다.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걷는 일정으로 체워진 순례는 때아닌 비바람이 모두의 의지를 시험하기도 했고, 갈다가 끊긴 길은 산으로 애돌아가며 계속되었다. 어두워져 행진이 힘든 밤에는 발에 잡힌 물집을 터뜨리며 하루의 순례를 평가했고, 주먹밥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도 지역마다 주민들을 만나고 홍보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3~4일이 지나면서부터 지치고 힘들었던 표정들은 차츰 평온해지기 시작했고, 말없이 한줄로 늘어서 깃발을 들고 걷는 광경은 차라리 암숙하기까지 했다. 발의 물집이 몇번 떠지고 다시 잡혀 어느정도 아픔이 적응되었을때는 방조제 사이로 스치는 바람과 머리 위를 나는 칠새들, 김게 빛나는 갯벌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몸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람이 걷는 건지 그 광경 그대로 움직이는 건지 구별이 안가는 듯 순례단은 자연과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비록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주지 않았어도, 남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았어도 우리의 갯벌(특히 새만금)을 온발로 지키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은 스스로에게도 큰 힘을 주었다. 이런 노력을 헛되지 않아 몇 달 후 감사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검토 지시를 하였고, 지금은 배지화 및 전면재검토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처이다. 매년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날아가는 철새들은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날아간다. 또한 갯벌은 육지에서 내보내는 오염물질을 정화해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게, 바지락, 조개 같은 우리들의 식탁을 풍부하게 만드는 식량자원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굳이 먹이사슬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각종 어패류의 산란장이며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갯벌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들 또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결코 둘일 수 없다

IMF가 터지고 난후 노사정위원회가 한참 기동될 즈음에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모여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모두가 시민운동 또는 진보운동이라는 큰 영역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니 뭘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 상이 잘 잡히지 않았다. 그만큼 노동운동 전영에서는 환경문제가, 환경운동 전영에서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증거였을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이 두 운동만큼 서로 닮아있고 궁합이 맞아야 하는 관계도 없을 것 같다. 우선은 그 역사적 배경이 그렇다. 둘다 현대 산업사회,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의 발단인 것이다. 산업사회는 경제적 수단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갈랐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의 소외와 환경오염을 가져왔다. 이런 의미에서 두 운동은 싸움의 대상이 같고 지향도 같다.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고 지구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기업가들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대상이요, 그를 때로는 방조, 때로는 지원하는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크고 화려한 것, 빠르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돌아가기에서  
작고 소박한 것, 느리고 불편한 것을 기쁘게 택할 줄 아는 삶.  
진정 "작은 것이 아름다움"임을 실천하는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노동자, 진짜 환경운동가의 몫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가와 노동자가, 인간과 자연이, 힘있는자와 소외받는 자가 서로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고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고통을 기꺼이 자기 몫으로 삼는 선에서도 너무나 닮았다.

지향이 같고, 싸움의 대상이 같고, 기본 성품이 건강한 사람들의 연대는 이미 판세가 나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기업의 반환경적인 상품에 대해 환경단체가 불매운동을 조직하고, 야간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기업주의 불법행위를 노동자들이 감시 고발하여 연대한다면, 일부 특권계층에 의해 다수 민중들이 고통 받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얼마든지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영역이 정치세력화하지 못하고 '운동' 차원에서 머물지만 이 신성한 운동의 힘들이 모이고 견고해져 진정한 '적-녹 연정'을 이룰 수 있을 때 까지 손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은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이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들은 질식해가고 있고, 모두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느라 끝이 낭떠러지안줄도 모르고 간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다.

오존층 파괴니 엘리뇨 현상이나 하는 말들이 전문시적의 교양적인 낱말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인류의 공존을 지속하게 해야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무한 소비주의에 대항하여 진정한 자연 속의 인간을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의 생활방식, 삶의 철학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크고 화려한 것, 빠르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돌아가기에서 작고 소박한 것, 느리고 불편한 것을 기쁘게 택할 줄 아는 삶. 진정 "작은 것이 아름다움"임을 실천하는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노동자, 진짜 환경운동가의 몫이 되어야 한다. ♦